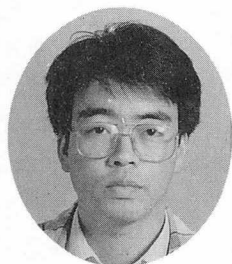


#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양돈경영 전략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산** 업경제의 발달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의 양돈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과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돈경영 자세

농장 차원에서 볼때 경쟁력의 확보라는 것은 곧 생산성의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분별로 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농장 경영이라는 큰 차원에서 통합 관리의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1) 양돈경영의 이념 확립

세계화를 맞는 우리 양돈인

들은 양돈업이 갖는 식량산업으로써의 중요도를 먼저 인식하고, 왜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하며 양돈장을 경영하는 경영이념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 이러한 내적인 요소가 바로 경쟁력 제고의 기초가 된다.

#### 2) 경영의 기초를 중요시 하자

아무리 자본력이 있다 해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업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판매촉진 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같은 경영의 기초적인 부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곧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

양돈업에서도 자기 농장의 매월 순이익 발생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3) 절대비교 우위를 확보하자

양돈업에서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생산성 지표는 이미 수치화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나의 농장과 국내외의 여러 양돈장과의 생산성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장경영은 수치화된 각 부분의 지표를 기준하여 나의 농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타 농장과의 경쟁(상대적 비교)이 아닌 수치화된 생산성 지표(절대적 비교)와 경쟁을 하는, 보다 합리적인 경영방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4) 농장경영의 핵심 지표

앞으로의 양돈은 돈가보다는 주로 생산원가와 출하물량 그리고 돈육의 품질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돈가의 등락폭이 과거와 같이 심하지 않을 것이며 가격 형성대도 약간 낮은 듯 한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장경영의 핵심지표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육질개선 이 세가지로 압축되어야 한다.

### 5) 벤치마킹 기법

벤치마킹이란 쉽게 말하면



농장의 생산,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 농장보다 생산성이 우수한 농장의 사양관리 방법과 경영방법을 모방,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돈업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2. 전산기록관리

컴퓨터산업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 오던 장부 정리가 거의 대부분 전산화되고 있다. 단지 기록유지를 위한 장부 정리에서 그 기록을 토대로 짧은시간 내에 버튼 하나만으로도 생산성 분석 및 원가 분석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비 절감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양돈 부분에서도 전산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 국내 양돈장의 전산관리 보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농장에서 전산기록관리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컴퓨터에 대한 공포 심 극복

“컴퓨터”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다루기가 힘들 것이라는 선입관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와 같은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인 경우라면 컴퓨터는 전자계산기를 다루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용하기가 더욱 쉬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컴퓨터가 어렵다는 선입관은 떨쳐버려도 좋을 것이다. 오

직 컴퓨터라는 기계에 적응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 2) 전산관리에 대한 개념이해가 필요

양돈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농장에서 전산관리를 시도하였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농장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전산관리 자체가 추가로 시간을 빼앗는 귀찮은 작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심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전산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 가)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

정확한 데이터 입력은 전산관리의 생명이다.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입력되므로 인해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되고 출력자료에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차라리 수기 작업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 전산관리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전산관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는 곤란하다. 자료입력을 하자마자 각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농장관리도 편해지리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은 하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보잘것 없는데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이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다) 지속적인 자료입력

전산관리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동안 꾸준한 자료의 입력이 요구되며 입력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는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실제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전산자료가 누적되어야 전산관리의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 전산관리를 현재 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중인 농장, 그리고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 농장들은 이러한 전산관리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꾸준히 입력하기 바란다. 약 1년 정도를 전산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투자기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3) 귀중한 전산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자

### 가) 농장경영의 이정표

상당 기간동안 전산입력을 하여 귀중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를 알지 못해 분만예정일, 교배현황, 백신작업예정 등을 알기위한 1차적인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출력자료를 찬찬히 분석해 보면 몇달후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

측할 수 있으며 어떠한 관리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가를 알 수 있고, 미처 느끼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파악 할 수 있다.

### 나) 전산자료의 분석

전산관리에는 입력과 출력작업 외에도 자료분석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의 입출력이 원활히 되고있는 경우라면 자료분석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업체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양돈업에서는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업규모 이상의 양돈장에서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농장의 경영개선 등은 전산관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3.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판매 순이익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된다면 원가절감의 의미를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20% 이하로 떨어진다면 원가절감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특히 양돈부분에서는 농장간의 생산원가의 차이가 사료비에서만 10%를 상회하는 차이를 보이는 만큼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인 관리 사항〉

1. 가급적 80일령 이내에서 육성돈사료로 전환급여(말기에는 비육후기사료급여)
2. 농장사정에 맞는 품질의 사료를 선택할 것(고가의 사료가 모든 농장에 다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종돈개량의 정도에 따라 사료품목을 결정한다.)
3. 사료허실 요인을 색출 제거(사료통 관리, 구서, 변패 등)
4. 사육환경개선, 만성 소모성 질병예방을 통한 사료효율 개선(특히 겨울철 돈사보온 및 습도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
5. 연중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사료급여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자체 사양시험 또는 전산관리를 통해 점검·번식돈 사료급여도 점검)
6. 사료거래는 가급적 공동구매 방식과 현찰구매로 전환

〈급성전염병 예방〉

(폐사율이 높다)

1. 주로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피해 정도가 크다.
3.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 차량(특히 출하차량), 인원, 동물들에 대한 차단 방역
  - 외부 구입돈은 혈청검사를 반드시 필할 것
4. 지속적인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용이하다.
  - 돈콜레라의 경우 백신접종이 1개월 간 미실시됨으로 인해 돈군면역도의 저하로 감염이 이루어져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5. 항생제, 설파제등의 약제에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는 포유자돈의 설사는 즉시 돈군혈청검사 및 가검물의 조직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만성소모성질병에 대한 대책〉

1. 돈사내 사육환경 개선이 기본(밀사여부, 환기, 소독, 습도, 보온, 섯바람 차단등)
2. 가능한 올인 올아웃방식을 도입
3. 각 사육단계별로 가능한 철저히 구분 사육
4. 정기구충 철저히 시행
5. 약품, 백신의 오·남용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이 좋다.
6. 정기 도체검사로 질병 발생의 정도를 파악하고 처치방법에 대한 효과를 판정

(폐사율은 낮으나 사료효율 저하, 치료비 상승, 육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1. 번식부분 생산성 향상(생산성 지수=PSY, 국내 평균 약 16, 목표 22 이상)
  - a. 전산기록을 통한 생산성 분석이 기본
  - b. 모돈의 회전율과 이유두수가 관건
  - c. 모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돈의 10% 정도로 상시 후보돈을 확보해야 한다.(문제 모돈의 적기 도태가 가능해진다.)
  - d. 표준 관리지침을 설정하여 엄격히 적용(특히 주간관리 및 모돈도태기준을 엄격히 적용)
  - e. 철저한 임신진단으로 불임돈 조기색출
2. 비육부분 생산성 향상(생산성의 척도=사료요구율)
  - a. 원가절감, 질병피해 최소화방안 참고

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1) 사료비 절감

국내 양돈장의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0%~70%로 보고 있다. 이처럼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사료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폭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회사의 사료를 급여하는 농장 간에도 돈사시설, 환경, 그리고 사료의 급여 패턴 등에 따라 사료비가 15%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모돈 100여두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성 및 돈사회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2) 질병으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

수백, 수천마리의 돼지가 한 울타리에서 사육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시라도 질병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애써 생산해낸 돼지가 한 순간의 실수로 무참히 폐사되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우리의 양돈장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입개방이 되는 시점

1. 잠증강제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교배조합을 구성(예 : LY×DD)
2. 인공수정의 적극 도입(육질개선을 가장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며 웅돈관리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육질등급 판정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개량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용한다.
4. 만성소모성질병의 피해를 줄여 항생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및 육질저하를 최소화한다.
5. 마케팅 차원의 돈육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서 전염성 질병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아마도 좀처럼 농장의 경영상태를 회복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각별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3)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은 곧 원가절감과 직결이 된다. 현재 외국 양돈장의 생산성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국내 양돈 생산성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4. 출하돈의 부가가치 창출

도체등급제가 시작된지 1년

여가 지나면서 각 등급별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하돈의 육질등급이 농장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96년부터 시행이 되는 육류내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대비하여 가급적 항생제와 설파제의 사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국산 돼지고기가 위생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름우유 시비와 시유에서의 항생제검출 사건으로 타격을 받은 낙농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위생적인 돈육생산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5. 맺는말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규모의 영세화를 탈피하고 집약적인 관리를 꾀하기 위해 규모확장을 해야 한다. 또한 매년 오르는 인건비 및 각종 물가를 상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사육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모 확장만을 할 경우는 큰 경영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 지면이나 세미나에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농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아직은 그러한 노력을 안해도 될 만큼 국내 양돈업이 여유가 있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값싼 수입돈육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농장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본지캠페인

# 돼지고기내 유해물질 잔류를 방지합시다